

▶ 청·일 전쟁(1894 ~ 1895)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 격화 • 동학 농민 운동 발발(백산 봉기, 1894. 3月) • : 반봉건, 정치와 사회 개혁 요구 → 전주성 점령(4月) • 동학 농민군 진압을 위한 도움 요청 → 청군 상륙(5月) → 텐진 조약 위반을 구실로 일본의 군대 파병(5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텐진 조약(1885)</p> <p>갑신정변 이후 청·일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양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되, 한쪽이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다른 쪽에 파병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화약 체결(5月 8日) ⇨ 청·일 양군의 철군 요구 ⇨ 일본의 거부, 경복궁 점령(6月) ⇨ 청군 공격[6月 23日(7月 25日)]
<p>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도 해전으로 전쟁 발발(1894. 7月) ⇨ 일본의 선전포고(8月) ⇨ 평양 전투(9月)를 계기로 일본군의 우세 ⇨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9月) ⇨ 일본군의 뤼순 점령(10月) ⇨ 웨이하이웨이 전투(1895. 2月)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승리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미국의 중재, 1895. 4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p> <p>제2조 청국은 아래에 기록한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성루, 무기 공장과 모든 공공 기물을 영원히 일본국에 할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봉천성 남부의 땅(랴오둥 반도) 2. 타이완 전체와 그에 딸린 여러 섬(평후 제도) <p>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일본 외교 연표와 주요 문서』</p> </div> <p>↳ 청과 조선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 붕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타이완 식민지 획득)로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1895. 5月) ⇨ 일본의 랴오둥 반도 반환(청, 3천만 냥의 추가 배상금 지불) ⇨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본격화 • 일본 → 금 본위제 개혁(1897), 군비 증강, 중공업 투자 확대(야하타 제철소 건립, 1901)

▶ 의화단 운동(1899 ~ 1901)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열강이 경쟁적으로 철도와 광산 등의 이권을 차지하고 조차지 획득[자오저우 만(칭다오, 독일) → <u>뤼순·다렌(러시아)</u> → <u>웨이 하이웨이(영국), 1898</u>], 크리스티고 선교 활동의 확대에 청의 전통문화와 계속 충돌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둥성의 민중을 중심으로 서양인과 서양 종교에 반대하는 조직인 의화단(義和團) 결성(1898) <u>부청멸양(扶清滅洋, 청 왕조를 도와 서양 귀신을 몰아내자)</u>의 구호를 외치며 교회, 학교, 철도 등 공격(1899) 톈진, 베이징 등지로 확대 청 정부도 의화단의 세력을 이용하여 열강 압박 시도 → 군대를 의화단에 참여시켜 교회를 불사르고 외국 대사관 공격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多),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u>8개국의 연합군 형성</u> → <u>베이징 점령(1900. 6月)</u>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베이징 의정서(= 신축 조약)</u> 체결(1901) : 열강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u>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허용</u>

▶ 러·일 전쟁(1904 ~ 190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러시아 군대의 만주 주둔(1900)</u> → 일본의 철병 요구 →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 고조 <u>제1차 영·일 동맹</u> 체결(런던, 1902) → 러·일 협상의 결렬(1903) → 일본의 단교 선언(1904. 2月 4日)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뤼순 공격(1904. 2. 8) ⇨ 인천항의 러시아 군함 공격(2. 9) ⇨ 일본의 선전포고(2. 10) ⇨ 황해 해전(8. 10) ⇨ 일본의 뤼순 함 함락(1905. 1. 1) ⇨ 봉천 전투(3. 1 ~ 3. 10) ⇨ 쓰시마 해전(5. 27) ⇨ 일본, 러시아의 발트 함대 격파(5. 28)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포츠머스 강화 조약</u> 체결(<u>미국 루스벨트의 중재</u>, 1905. 9. 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2조 <u>러시아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u>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p> <p>제5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청국 정부 승낙 하에 <u>뤼순, 다렌 및 그 부근의 …… 모든 권리 특권을 일본 제국 정부에 이전</u>한다.</p> <p>제9조 <u>북위 50° 이남의 사할린 섬과 부속 섬들을 일본에 양도</u>한다.</p> <p>제11조 연해주의 캅차카 어업권을 일본 국민에게 양도한다. - 『구한말 조약 회찬』</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을사늑약 체결[조선의 보호국화 및 외교권 감독(日), 통감부, 1905. 11月]</u> ⇨ 만주선후조약(청 ~ 일, 포츠머스 강화 조약 승인, 1905. 12月) ⇨ 러·일 협상(창춘을 경계로 남만주와 북만주를 각자의 세력 범위로 정함, 1907. 7月) ⇨ 한·일 병합(1910. 8月 22日)

① 을사늑약(『금성·미래엔·비상 교과서』, p.152·141·136)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을 완전히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격의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 『고종실록』

② 만주 선후 조약(『비상 교과서』, p.136)

제1조 청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포츠머스 조약에 의거해 일본국에 대해 행한 일체의 양도를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청과 러시아 약국 간에 체결되었던 조차지 및 철도 부설에 관해 원 조약에 비추어 노력하고 준행해야 함을 승낙한다.

개념 Check

- ① 청·일 전쟁의 결과 ()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이 타이완 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 ② 1895년 러시아가 주도한 ()으로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였다.
- ③ () 운동의 결과 신축 조약이 체결되어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이 허용되었다.
- ④ 러·일 전쟁은 ()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어 종결되었다.
- ⑤ 1905년 11월 일본은 ()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을 박탈하였다.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제4조 청은 배상금으로 일본에 은 2억 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청은 본 조약을 비준한 후 일본과 통상 항해 조약 및 육로 통상 장정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6조 청은 각국에 대한 배상금을 은 4억 5천만 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청은 각국이 베이징의 외교 공관 일대를 전용 거주지로 삼고 군대를 상시 주둔시켜 각 공관을 보호하는 것을 허가한다.

- ① (가) - 8개국 연합군 출병의 결과로 체결되었다.
- ② (가) -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
- ③ (나) -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조인되었다.
- ④ (나) - 평후 열도를 할양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 ⑤ (가), (나) -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하였다.

▶(가), (나) 조약 체결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제4조 청은 배상금으로 일본에 은 2억 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 ① 전주 화약이 맺어졌다.
- ②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었다.
- ③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하였다.
- ④ 일본 제국 의회가 개설되었다.
- ⑤ 도쿄에서 아주 화친회가 결성되었다.

▶ 밑줄 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작년 귀국이 타국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우리 백성들은 귀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국이 승리한 후에는 더 흥포해져서 우리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모든 정법(政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나는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상경하여 귀국의 주치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죽을 것입니다.

- ① 일본이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 ② 청이 일본에 타이완을 할양하였다.
- ③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되었다.
- ④ 일본이 다롄에 대한 조차권을 차지하였다.
- 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선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청일 전쟁의 전개 과정>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

▶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과 동아시아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1915)</u> → 대독 선전포고 →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u>산둥 반도의 칭다오 일대 점령</u> • 중국 정부에 <u>'21개 조 요구'</u> 강요(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시도, 1915. 5. 7.) → 위안스카이 수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제1호 <u>산둥 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한다.</u> 제2호 <u>일본이 뤄순, 다롄을 조차하는 기한을 99년간 연장하고,</u> 남만주 등에서의 이권을 인정한다. 제4호 중국의 항만, 섬을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 할양·조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호 일본인의 정치·재정·군사 고문과 일본인 경찰관을 채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일본사 사료집』</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파리강화회의(1919 ~ 1920)</u> → 베르사유 조약(1919. 6월) : 승전국으로 참여한 일본이 <u>점령지인 산둥 반도에 대한 권리를 독일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인정</u> ⇔ 중국의 반발 • <u>워싱턴 회의(1921. 11월 ~ 1922. 2월)</u> :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 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u>미국의 주도</u>로 개최 : 일본 → <u>산둥 반도에 대한 이권 포기</u>, 시베리아 철병, 해군과 육군 감축 : <u>영·일 동맹 폐기</u> ↳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가 공동 협력을 약속하는 4개국 조약, <u>중국의 영토와 주권 존중</u> 및 문호 개방을 골자로 하는 9개국 조약 체결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식민지화 → 총독부 신설, 총독 파견, 헌병 경찰과 무단 통치(1910 ~ 1919) • 파리 강화 회의에서 채택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u>3·1 운동(1919)</u> 전개 ↳ 이른바 문화 통치(1919 ~ 1929)를 표방하며 민족 분열 획책
<p>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두슈 등의 지식인이 『청년잡지』(→ 『신청년』)를 발행하는 등 과학과 민주주의를 앞세운 <u>신문화 운동 전개(공가점타도, 1915)</u> • 5·4 운동(1919) : 파리 강화 회의의 외교 실패 → 베이징 대학생들이 대규모 반(反)군벌·반일 시위 주도(<u>21개 조 취소, 산둥 성의 독일 조차지였던 칭다오의 반환, 친일 관료 3명의 파면 요구</u>) → 상인과 노동자 등이 가담 → 베이징 정부의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 지식인들이 노동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여 <u>중국 공산당이 창당[천두슈(총서기), 상하이, 1921]</u>되는 데 영향

▣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란 각 민족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서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타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천명한 집단적 권리이다. 본래 제1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이나,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레닌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각각 제창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 5·4 운동(『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143·145·139)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한 것은 세계에 정의·인도·공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 군사 협정,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지를 다섯 나라가 공동 관리하여 우리를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치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조선에서는 독립을 피하면서 ‘독립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라고 외쳤습니다. 무릇 국가의 존망과 영토의 분할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이르러서도 그 백성이 여전히 큰 결심을 내려 최후의 구원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20세기의 천박한 증자로 인류에 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포가 노예나 말과 소처럼 부러지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분발하여 구하려 나서고자 한다면, 즉 국민 대회를 열고 노천 강연을 하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국에 전보로 알리는 것이 오늘의 급무입니다.

- 베이징 학생계 선언

개념 Check

- ①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1915년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산둥 성의 ()를 공격하였다.
- ② 1915년 일본은 중국의 베이징 정부에 ()을 제시하여 내정 간섭과 이권 확보를 시도하였다.
- ③ () 회의 참가국들은 산둥 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였다.
- ④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 ⑤ 중국을 둘러싼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군 군비를 축소하기 위해 1921년 ()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⑥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 반도의 이권 반환 등 중국의 주장이 거부되자, 베이징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⑦ () 등 지식인들의 주도 하에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1조 중국 정부는 독일이 산둥 성에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 이익 등의 처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하는 모든 사항을 승인할 것을 약속한다.

(나) 일본과 중국은 산둥 성에 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일본은 구(舊)독일의 자오저우(膠州)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다.

- ① 5·4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중화민국이 건국되었다.
- ③ 변법자강 운동이 추진되었다.
- ④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밑줄 친 ‘회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에 밀약을 강요하여 영·미의 이익과 충돌하였다. 이에 영·일 동맹의 갱신 여부 결정을 앞두고, 중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동맹 폐기를 주장하였고 미국인도 동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강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위해 군비 조절 및 중국 문제를 다룬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영·일 동맹은 공식 폐기되었다.

- ①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였다.
- ②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였다.
- ③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식민지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산둥 반도의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무장 독립 운동의 전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연해주, 상하이, 한성 등지에서 임시 정부 수립 선포 임시 정부 통합 운동을 통해 외교 활동이 유리한 <u>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u>(1919. 9월)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u>민주 공화제</u> 채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있음).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p> <p style="text-align: right;">- 『대한민국 임시 정부 자료집』</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통제, 교통국 등을 통해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 구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신문』 발간 → 독립 운동 소식을 국내외에 전달 구미 위원부 설치(워싱턴, 1919) →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 전개
무장 독립 운동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등 무장 독립 운동 단체 결성 ↳ <u>봉오동 전투</u>(대한독립군, 1920. 6월), <u>청산리 전투</u>(북로군정서 + 대한독립군, 1920. 10월)에서 승리
열사 투쟁	의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원봉(1898 ~ 1958), 윤세주(1900 ~ 1942) 등이 길림에서 결성(1919) 직접 투쟁 방법인 암살과 파괴, 폭파 등의 방법(7가살 5파괴)으로 독립 운동 전개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구(1879 ~ 1949), 만보산 사건(1931)으로 발생한 한·중 갈등의 봉합과 임시 정부에 활력을 넣고자 결성(1931) ↳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혁명 수단의 근본이라는 취지 이봉창의 도쿄 의거(1932. 1월), <u>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u>(1932. 4월)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 정부 승인 → 재정 지원과 군사 지원

▶ 중국에서의 통일 정부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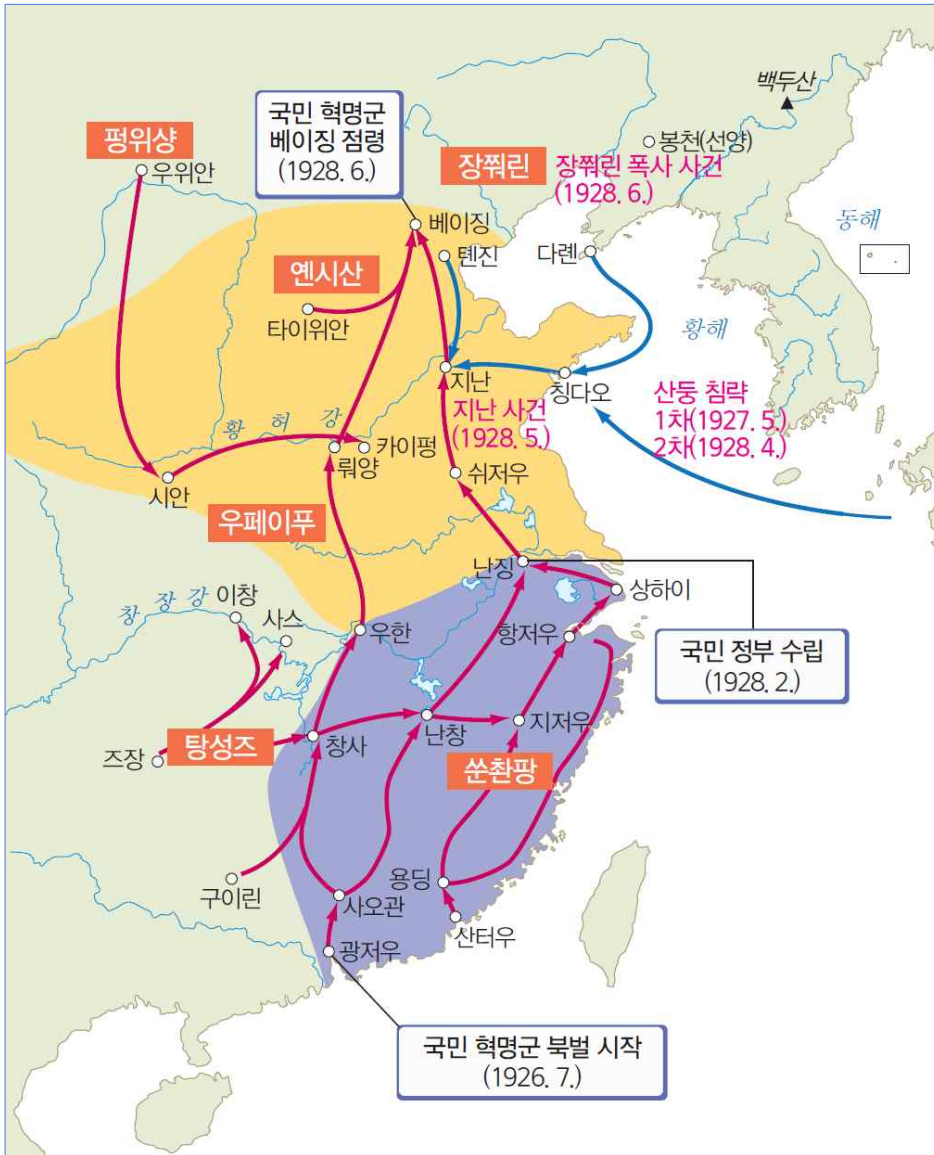
1919년	• 쑨원(1866 ~ 1925), 중국 국민당 결성(중화혁명당의 개칭, 상하이) → 군벌의 해체와 전국 통일을 위한 운동 전개
1921년	• <u>천두슈</u> (1879 ~ 1942) · 리다자오(1888 ~ 1927) 등의 혁명가들이 <u>중국 공산당 결성</u> (상하이)
1924년	• <u>제1차 국·공 합작</u> : 소련의 지원을 받으며 공산당과 손을 잡고 <u>국민 혁명군</u> 결성 : 삼민주의, 반제 · 반봉건 군벌, 연소(聯蘇) · 용공(容共) · 노농원조(勞農援助) 등 3대 정책 표방 : 조선의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 <u>신간회 결성, 1927 ~ 1931</u>)
1925년	• <u>쑨원 사망</u> (3. 12) • <u>5·30 운동</u> (상하이) : 일본계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가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발발 → 전국적인 반제국주의 · 반군벌 운동으로 발전
1926년	• 장제스(1887 ~ 1975) : 광둥 성 통일,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한 <u>국민 혁명군의 북진 통일 선언</u> (<u>북벌 개시</u> , 7월)
1927년	•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얻어 창장 강 일대 남부 9성 석권 • 한커우 조계 강제 회수로 열강과의 긴장 고조 • 공산당 주도의 노동 운동, 농민 운동 확산 : 장제스의 경계 → <u>상하이 반공 쿠데타(4월 12일)</u> → 제1차 국·공 합작 붕괴(7월)
1928년	• <u>난징 국민 정부 수립</u> (2월) ⇨ 일본의 제2차 산둥 침략(4월) ⇨ <u>지난 사건</u> (⇨ 일본군, <u>제3차 산둥 침략</u> , 장쭤린 보호 목적, 5월) ⇨ 국민 혁명군의 베이징 점령(6월) ⇨ 장쭤린 폭살 사건(6월 4일) ⇨ 장쉐량(1898 ~ 2001)의 국민당 가입과 <u>북벌 완수</u> (12월)

지문 확인

■ 제1차 국·공 합작(『비상 교과서』, p.139)

국민 혁명의 임무는 제국주의 열강과 군벌 세력을 축출시키는 것인데, …… 그러므로 국민 혁명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힘을 한 당에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제국주의와 군벌로부터의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즉 전 민족의 힘을 국민운동에 쏟아 부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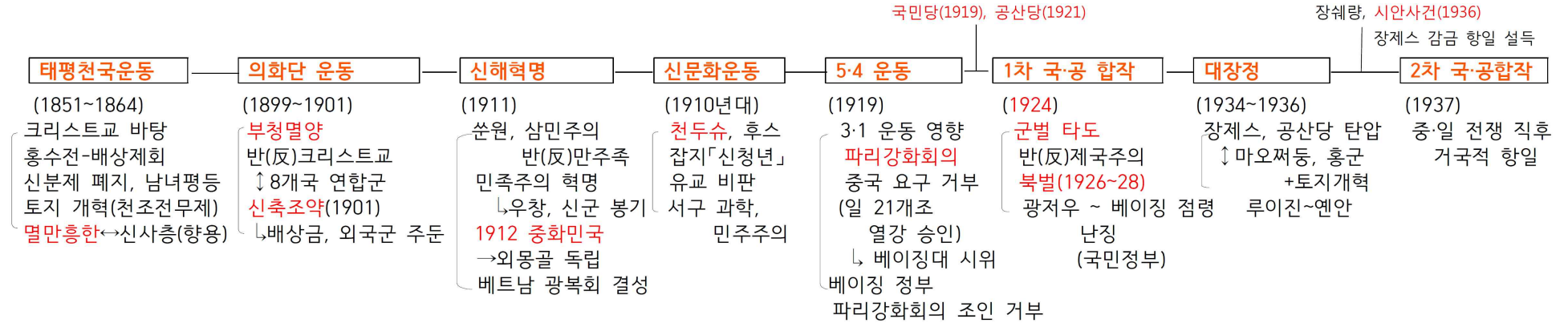
- 베이징 대표 리다자오 의견서(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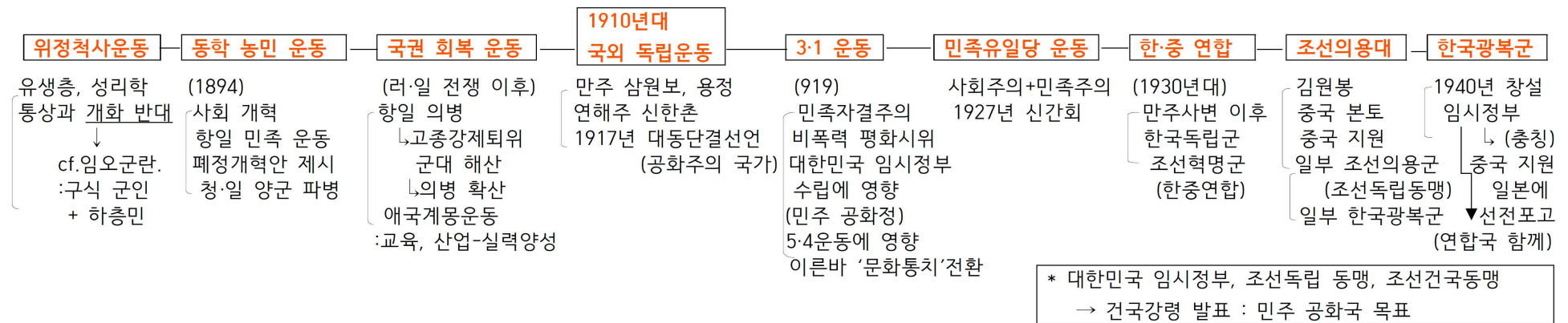
장제스는 5·30 사건(1925)을 계기로 지지 기반을 다지고, **1926년 7월 국민 혁명군의 북벌을 선언**하였다. 장제스가 북벌을 전개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산둥에 군대를 파견하여 국민 혁명군을 공격**하였다. 북벌이 완성되면 자신들의 권익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국민 혁명군은 북벌 추진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1928년 국민 혁명군이 북벌을 다시 전개하자, 일본은 관동군과 조선 주둔군을 동원하여 **제3차 산둥 침략(→ 지난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베이징을 장악하고 있던 만주 군벌 장쑤린을 보호하여 만주와 내몽골에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국민 혁명군이 베이징에 입성하자, 일본군은 장쑤린이 탄 기차를 폭파하여 그를 죽였다. 이는 국민당의 북벌(국민 혁명)이 만주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장쑤린의 뒤를 이은 아들 장쉐량이 국민 정부를 따를 것 선언하면서 국민 혁명군은 북벌을 완성하였다.

중국



한국



개념 Check

- ① 쑨원 사망 이후 ()는 중국 국민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을 시작하였다.
- ② 1924년 국·공 합작을 이룬 국민 혁명군은 베이징 ()을 타도하기 위해 북벌(1926 ~ 1928)을 추진하였다.
- ③ 장제스가 북벌을 전개하자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1927 ~ 1928년 세 차례에 걸쳐 () 반도를 침략하였다.
- ④ 1919년 3·1운동의 성과로 상하이에 ()가 수립되었다.
- ⑤ 김원봉이 결성한 ()은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주요 인물을 암살하였다.
- ⑥ 제1차 국·공 합작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1927년 민족 유일당 단체인 ()가 결성되었다.

장제스는 깡패들을 동원하여 자베이(闕北)와 난스(南市) 등에서 노동자 규찰대를 습격하게 하였다. 군대를 동원하여 노동자 규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는 노동자들을 학살하였다. 다음 날 국민당군은 바오산루(寶山路)에서 시위 군중을 도살하였다. 중국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쿠데타에서 공산당원과 혁명 군중 300여 명이 살해되었고, 500여 명은 체포되었으며 5천여 명은 실종되었다.

- 4·12 석비(상하이)

▶ 밑줄 친 '선언' 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광저우는 새로운 혁명 정권의 도시가 되었다. 소련의 군사 고문과 정치 고문이 광저우에 도착하였고, 황푸 군관 학교에서 군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많은 조선인들도 이것이 조국 해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광저우로 달려왔다. 쑨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는 오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에서 군벌을 타도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가)	(나)	(다)	(라)	(미)
베트남광복회 결성	5·4 운동 발생	제1차 국·공 합작 체결	신간회 창립	중·일 전쟁 발발	일본의 무조건 항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 밑줄 친 '이 도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도시는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개방된 5개 항구 중 가장 북쪽에 있었다. 영국이 조계지로 정한 구역은 성벽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미국은 흥커우라고 불리는 땅을 차지하였고, 프랑스는 성벽과 영국 조계지 사이의 땅을 확보하였다. 이후 미국과 영국은 조계지를 합쳐 공동의 조계지를 만들었다.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 곳이었다.
- ② 청·일 전쟁의 강화 조약이 체결된 곳이다.
- ③ 군수 공장인 금릉 기기국이 설립된 곳이다.
- ④ 북촌의 부인들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곳이다.
- ⑤ 김원봉의 주도로 조선 의용대가 조직된 곳이다.

Plus

베트남의 민족 운동과 근대화

- 응우옌 쩌엤 또(1827 ~ 1871)의 개혁 요청
: 관료제 개혁, 근대식 군대 창설, 조세 제도 개편, 근대식 교육 강조 등
: 프랑스의 침략 강화로 실패 → 각지의 반란 빈발
- 프랑스의 보호국화
: 청·프 전쟁 발발(1884) ⇨ 프랑스 승리 ⇨ 학자와 관리들의 근왕(勤王) 운동 전개와 실패(1885)
- 판 보이쩌우(1867 ~ 1940)
: 베트남 유신회 결성(1904)
: 동유 운동(1905) 전개, 『월남망국사』(~ 량치차오, 1905)
: 아주 화친회 결성(도쿄, 1907)에 참여
: 베트남 광복회 조직(광저우, 1912)
- 베트남 국민당(구옌 다이 흑, 1927), 베트남 공산당(호찌민, 1930)

▶ 일본의 중국 침략

만주 사변 (1931)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대공황 발생(1929) →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주요 자원과 군수 물자의 공급처로 삼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 류타오거우(= 류타오후, 柳條溝) 사건(1931. 9월 18일) → 만주 주둔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주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만주 일대 점령 → 청(淸)의 마지막 황제 푸이(선통제, 1906 ~ 1967)를 내세워 만주국 수립(1932. 3월) 국제 연맹의 리튼 조사단 파견과 보고서 작성(1932. 3 ~ 5월) :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며 군대 철수 요구 → 일본의 국제 연맹 탈퇴(1933. 3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북 지역(만주)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이다. 2. 일본군의 행위는 합법적인 자위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 (만주국) 정부의 수반은 명목상 만주인이지만, 실권은 일본 관리와 그 고문들의 손에 놓여 있다. 현지의 중국인들이 보기에 만주국은 완전히 일본인을 위한 도구이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 중국 침략을 계속하여 중국 북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중·일 전쟁 (1937)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거우차오 사건(1937. 7월 7일) :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마르코 폴로 브리지)에서 중·일 군대의 충돌 → 베이징·텐진에 대한 총공격 개시(1937. 7월 28일)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징 대학살(1937. 12월 13일), 삼광 작전[三光作戰, 살광(殺光)·소광(燒光)·형광(珩光)] 우한, 광저우 등 주요 도시와 철도망 장악 ↳ 중국 국민 정부는 수도를 충칭으로 옮겨 항전 지속, 농촌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항일 전쟁 전개 일본군의 충칭 대공습(1938 ~ 1943)
제2차 국·공 합작 (1937 ~ 44)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루이진 ~ 옌안, 1934 ~ 1936) ⇨ 8·1 항일 구국 선언(1935) ⇨ 시안 사건(1936. 12월 12 ~ 25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공산당의 국·공 합작 공포를 위한 선언(1937. 7. 1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쑨원 선생의 삼민주의를 중국 금일의 필수로 삼으며, 본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해 분투한다. 2.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모든 폭동 정책과 공산화 운동을 취소하고, 폭력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취소한다. 3. 현재의 소비에트 정부를 취소하고, 민권 정치를 실행하여 전국 정권의 통일을 꾀한다. 4. 홍군(공산당 군대)의 명칭 및 번호를 취소하고 국민 혁명군으로 개편하여 국민 정부의 지시를 받고, 아울러 지시를 기다려 출동하여 항일 전선의 직책을 떠맡는다. </div>

▶태평양 전쟁(1941 ~ 1945)

193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의 방공 협정 체결
193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국가 총동원법 제정(4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질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 발발(9月) 일본의 식민지 정책 → 국민 징용령, 금속 공출과 미곡 공출 시행
194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중·일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를 얻고자 베트남 북부 침공 → 베트남 남부를 차지하고 군사 기지 건설 ↳ 미국이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경제 봉쇄 조치 단행 한국광복군 창설(9月)
194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독립 동맹(베트민) 결성(호찌민, 5月) ABCD 포위망(7月) ⇨ 일본, 태평양 전쟁(12月) : 하와이 진주만의 미국 태평양 함대 기습 공격(미국의 참전), 영국령 말레이반도에 상륙하여 영국군을 선제공격
194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 과달카날에서 버마, 알류산 열도에서 자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 점령(남방 작전) 미드웨이 해전(6月) ⇨ 과달카날 전투(남서태평양 솔로몬 제도 남동부, 8月)
194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달카날 섬 철수(2月) ⇨ 카이로 선언(11月)
194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식민지(타이완, 조선) 지배 정책 → 징용, 징병, 여자 정신대 근로령 레이테만 해전(필리핀, 10月)
194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타 회담(2月) 이오지마 전투(2月) ⇨ 도쿄 대공습(3月) ⇨ 오키나와 전투(3 ~ 6月) 포츠담 선언[연합국(미·영·중),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카이로 선언의 이행 확인, 7月] → 일본의 거부 히로시마 원폭 투하(8月 6日) ⇨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8月 8日) ⇨ 나가사키 원폭 투하(8月 9日) ⇨ 일본의 무조건 항복(8月 15日)

▶(기) 국가의 수립 이후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군은 중국군과 무력 충돌을 일으킨 후, 청조 최후의 황제 푸이를 내세워 (기) 을(를) 세웠다. 이 국가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제치고 소수의 일본인이 중앙 정부 관리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권력의 핵심인 국무원, 법원, 검찰청은 일본인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 ① 워싱턴 체제가 시작되었다.
- ② 일본이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 ③ 상하이 조계에서 5·30 운동이 일어났다.
- ④ 쑨원이 임시 대통령에 선출되어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 ⑤ 일본이 삼국 간섭으로 라오둥 반도를 반환하였다.

▶밑줄 친 ‘이번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 영국, 중국 등 3개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 우리는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할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할 것을 선언한다.

<보기>

- ㉠ 월슨이 제기한 민족 자결주의가 채택되었다.
- ㉡ 영·일 동맹이 해체되고 일본의 군비가 제한되었다.
- ㉢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태평양 지역의 전세가 역전되었다.
- ㉣ 중국 국민 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 ① ㉠, ㉡
- ④ ㉡, ㉣

- ② ㉠, ㉢
- ⑤ ㉢, ㉣

- ③ ㉡, ㉣

▶ 항일을 위한 한·중 연대

19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주 사변(9월) <u>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u>(대한민국 임시 정부 승 중국 국민당 인사, 11월 or 1932. 3월) 		
1932년	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조선혁명군</u>(1929 ~) <u>한국독립군</u>(1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세봉(1896 ~ 1934)의 지휘, <u>영릉가</u> 전투(~ 중국의용군) 지청천(1888 ~ 1957)의 지휘, <u>쌍성보</u> 전투(~ 중국호로군)
	중국 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한인애국단</u>의 활동을 계기로 한·중 연대 추진 ↳ 중국 국민 정부는 한국의 독립 운동이 중국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 지원 	
1933년	만주	<u>조선혁명군</u> (1929 ~)	• <u>흥경성</u> 전투
		<u>한국독립군</u> (1930 ~)	• <u>사도하자</u> 전투, <u>대전자령</u> 전투
1935년	• 한·중 항일 동맹회 조직(조선혁명군 ~ 중국의용군)		
1936년	• 한국과 중국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로 조직된 동북 인민 혁명군(1933)의 확대 개편으로 <u>동북 항일 연군</u> 결성		
1937년	• <u>중·일 전쟁</u> 발발(7월)		
1938년	• <u>조선의용대 창설</u> (한커우, 10월)		
	: 김원봉 주도,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군사 조직 : <u>중국 국민 정부의 지원</u> , 국민당 군대와 공동으로 항일 투쟁 전개		
1940년	• <u>한국광복군 창설</u> (충칭, 9월)		
1941년	•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11월)		
	: 중국 중앙군 참모총장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명령과 통제(~ 1944) • 중국 국민 정부의 지원 → <u>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 독일에 선전 포고</u> (12월)		
1942년	• <u>조선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합류</u> (5월) → 한국광복군 제1 지대로 편제		
	• <u>조선의용군</u> 결성(연안) → 중국공산당의 지원, 팔로군과 항일 전쟁 추진		
1943년	• 한국광복군 → 영국군에 파견되어 인도·미얀마 전선에 투입		
1945년	• 중국과 원조한국광복군판법 체결(5월)		
	• 미국 OSS(미군전략정보처)의 지원 아래 <u>국내 진공 작전 추진</u>		

▶ **빈제와 빈전 평화를 위한 연대**

1907년	• 아주화친회 결성 (도쿄) : 러·일 전쟁 이후 도쿄에서 활동하던 중국인(장빙린), 베트남 독립 운동가(판보이쩌우), 일본인 혁명가들의 교류 증대 : 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 , 첫 번째 회합에 중국 혁명가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고토쿠 슈스이 (1871 ~ 1911)의 참여	
1910년	• 안중근(1879 ~ 1910), 『동양평화론』 집필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의 상호 협력 주장(⇔ 이토 히로부미, 『동양평화론』)	
1923년	• 박열·가네코 후미코, 일본에서 반전·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불령사(不逞社) 조직	
1927년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 제1차 창립 →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가 참여
1928년		• 한국(신채호), 일본,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조직 재정비 → 정식으로 결성, 기관지 『동방(東方)』 발간
1929년	일본 반제 동맹	• 반제국주의 민족 독립 지지 동맹 일본 지부의 개칭 :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 투쟁 강조 : 『반제신문 조선어판』 발간(1934 ~) → 재일 한국인의 가입 증가
1931년	항일 구국 연맹	• 한국(이회영), 중국, 일본의 무정부주의자 주도 • 민족의 자주성과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 =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
1940년	일본 병사 반전 동맹 연안 지부	• 중국 공산당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 병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1940. 5월) • 무선 방송 등을 통해 일본군에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는 반전 운동 전개

▣ **사이토 다카오(1870 ~ 1949)의 반전 연설(『천재 교과서』, p.151)**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시에 당하는 국민의 희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바로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희생적으로 생명을 바치든가, 상처를 입고, 약전고투하고 모든 고난을 견디는 백만, 이백만의 군대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전시 경제의 파도를 타고 흥청망청하는 산업이 발전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일확천금, 아니 그보다 실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자가 얼마만큼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런 불공평한 사실을 앞에 두고, 국민을 향해 정신 운동을 하고, 국민을 향해 긴장감을 갖게 하는 등 인내를 하라는 등 추궁하는 것만이 정부의 능사가 아니다.

- 『현대사 자료』 13

1940년 일본 중의원의원이었던 사이토 다카오는 중·일 전쟁에 반대하고 군인의 정치 활동이 국헌과 국법에 금지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장내는 의원들의 아우성으로 요란하였지만, 그는 준비한 연설을 끝내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사이토 다카오에 대한 제명 동의안은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반대는 겨우 7표밖에 되지 않았다.

①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문(1938)』(『금성·비상 교과서』, p.161·141)

- 중국에 있는 우리 혁명 동지들이 직접적으로 항일 전쟁에 참가하며, 또한 항전 과정 중에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 공동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포악한 수단으로 조선 혁명 운동을 잔해하며 야만 횡포의 정책으로 중국 혁명을 저지하여 중·한 양 민족의 연합 전선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 혁명이 완성치 못하므로 조선 민족을 압박 착취함이 더욱 심하며 조선 민족이 해방되지 못하므로 중국 침략이 더욱 포악함이 사실이다. …… 조선 민족과 동방 약소민족은 응당 중국을 도와 항전할 것이다.
-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마침내 중화 민족은 강렬한 저항을 만났다. …… 천백만 조선 겨레들을 불러일으켜 조선 의용대의 기치 밑에 모이게 함으로써 ……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을 타도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용감한 중국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 항일 전선을 향해 용감히 전진하자!

② 『한국광복군 선언문(1940. 9. 15.)』(『천재·미래엔·비상 교과서』, p.153·151·145)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원년(1919)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 군대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우리 국가의 해방 운동과 특히 우리들의 압박자 왜적에 대한 무장 항전의 준비는 그의 도의적 지원으로 크게 고무되는 바이다.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③ 『중국항일군과 한국독립군의 합의 사항(1931. 12月)』(『비상 교과서』, p.146)

- 한·중 양군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막론하고 장기 항전을 맹세한다.
- 중동선 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 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 전선은 한국군이 담당한다.
- 한·중 양군의 전시 후방 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 독립군의 군수 물자는 중국군이 공급한다.

④ 『조선혁명군과 중국의용군의 합의(1932. 4月)』(『미래엔 교과서』, p.151)

중국과 한국 양국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⑤ 동아시아의 반파시스트 동맹(『미래엔·비상 교과서』, p.152·146)

일본 파시스트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피압박 대중은 일본 국내의 근대 대중이든,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의 민족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가 현재 가장 엄중한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먼저 일본 파시스트 군벌에 반대하는 연합 기구를 건설해야 하며, …… 연합하여 공동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동시에 일본 파시스트 군벌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중 투쟁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일본·조선·타이완의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 위원회 선언』 1938. 7. 14.

⑥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금성 교과서』, p.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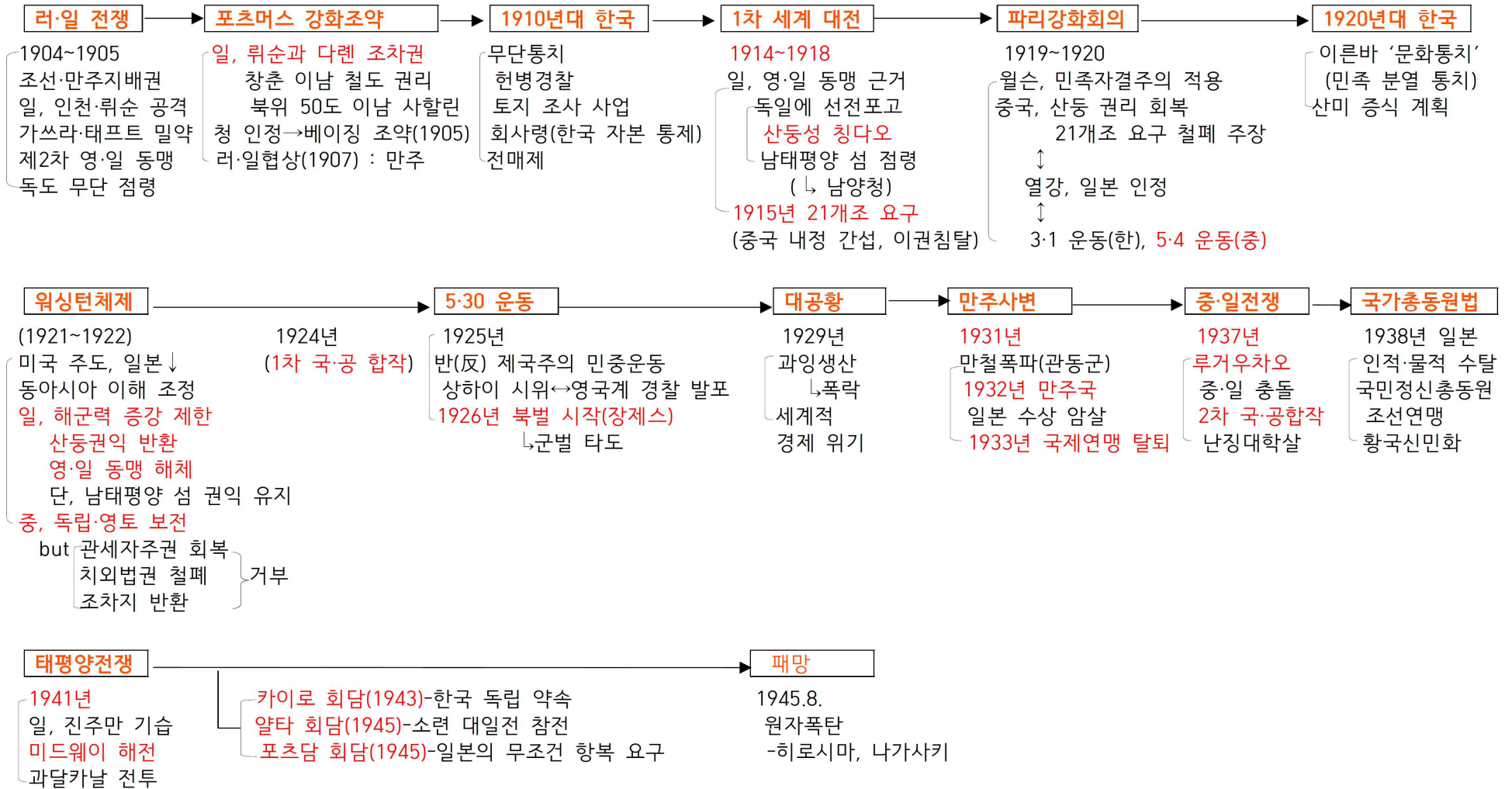
오늘날 서구 세력이 점차 동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환란을 동양 인종은 일치단결하여 함께 방어해야 함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정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종족, 이웃 나라의 가족을 벗기고 살을 베어내니 …….

개념 Check

- ① 만주에 주둔한 일본 관동군은 1931년 ()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 ② 일본은 1937년 베이징 교외 ()에서 발생한 총돌을 구실로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 ③ () 사건과 중·일 전쟁 발발을 계기로 제2차 국·공 협력이 이루어졌다.
- ④ 일본군은 중·일 전쟁 당시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물자를 약탈하는 이른바 () 작전을 벌였다.
- ⑤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고, 조선과 타이완 등지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 ⑥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켜 당시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을 점령하고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 ⑦ 미국은 ()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45년 8월 일본의 ()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 ⑧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당의 토벌을 피해 ()을 감행하여 연안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 ⑨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은 비밀 결사인 ()을 결성하였다.
- ⑩ 만주 사변 이후 양세봉이 이끄는 ()은 중국의용군과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 ⑪ 중일 전쟁 이후 중국 국민 정부의 한국 독립운동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커우에서 ()가 조직되었다.
- ⑫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조직은 1907년에 결성된 ()이다.
- ⑬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후 뤼순 감옥에서 『_____』을 집필하였다.
- ⑭ ()는 러·일 전쟁 무렵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전쟁 반대를 주장하였다.

Summary

침략 전쟁의 확대



▶(가), (나)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의 근거지는 남만주와 압록강 연안인데, 이곳에 대한 일본군의 공세가 갈수록 엄중해질 것이다. 이에 (가)은(는) 양세봉 장군의 지휘 아래 중국의용군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영토 내에 (나)을(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총사령부의 창설을 선언한다. (나)은(는)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항전을 계속한다.

- ① (가) - 흥경 일대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가) -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에 참여하였다.
- ③ (나) - 국민 혁명을 목표로 북벌을 개시하였다.
- ④ (나) -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 ⑤ (가), (나) -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흡수하였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가) 7월 7일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총성이 울렸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상하이를 함락하였다.
- (나)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임을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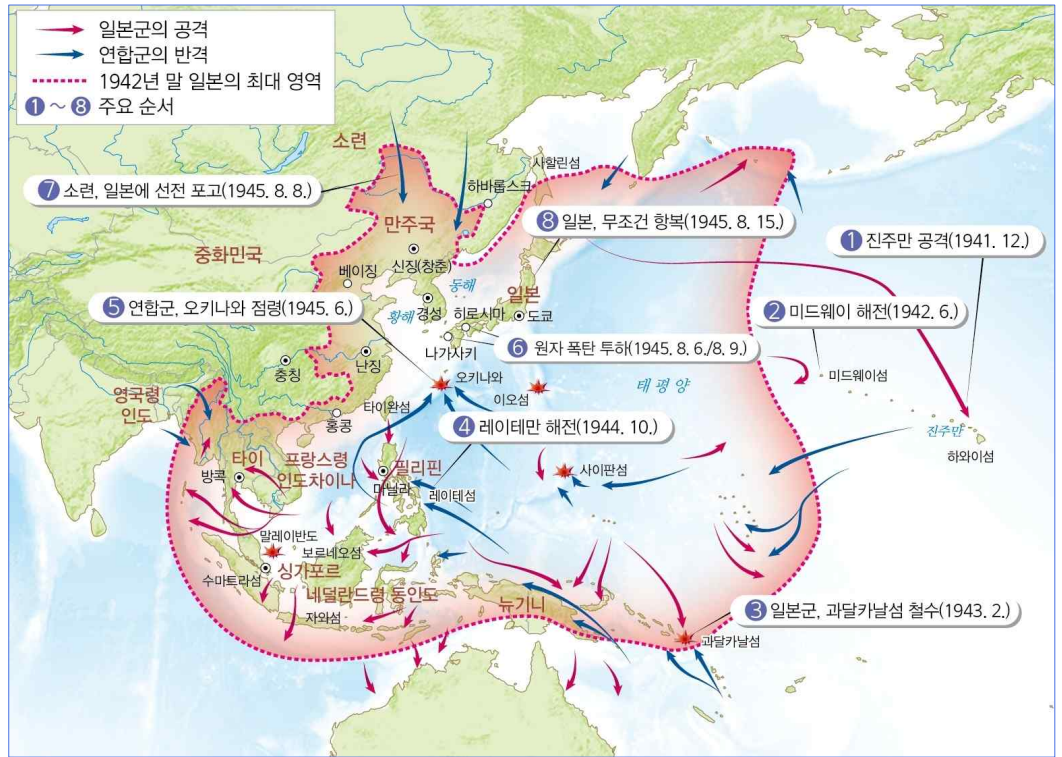
- ①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 ②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 ③ 베트남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 ④ 상하이에서 5·30 운동이 일어났다.
- ⑤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1 일본의 영토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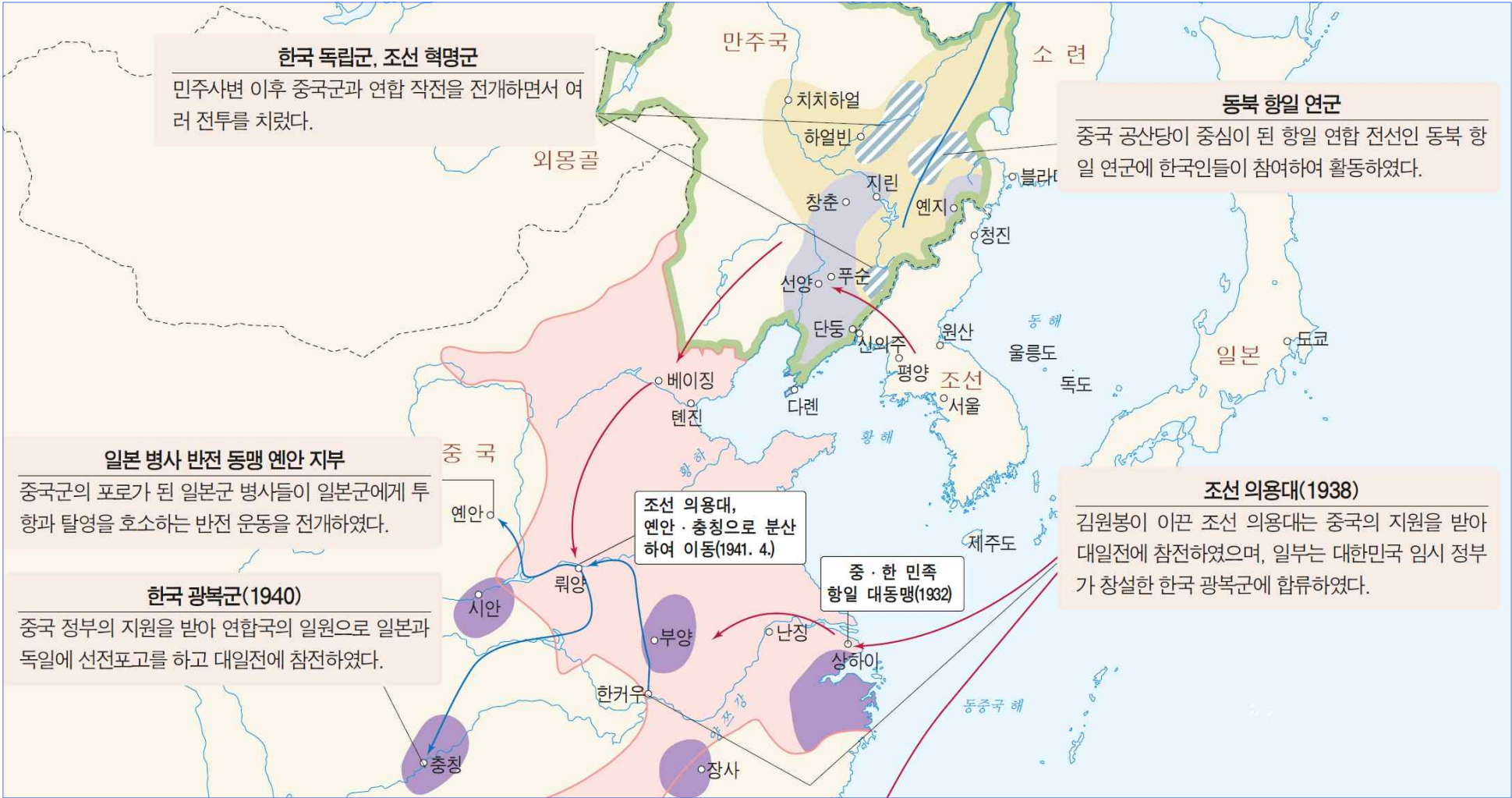
- ① _____년
- ② _____년
- ③ _____년
- ④ _____년
- ⑤ _____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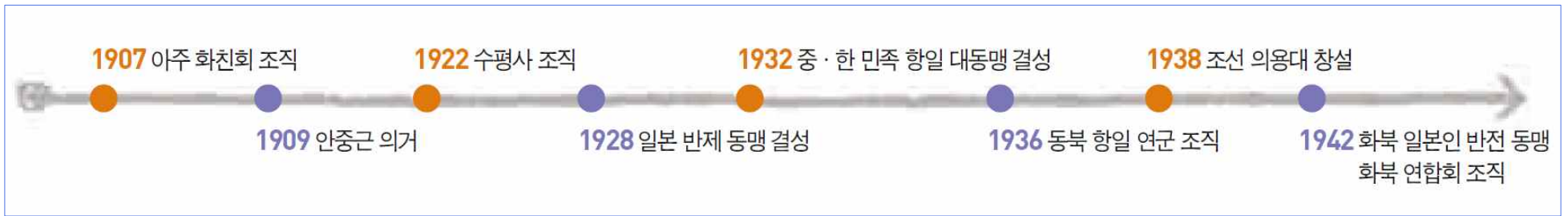
2 태평양 전쟁의 전개 과정



Check!

반전을 위한 연대





				
<p>▲우치무라 긴조 (1861 ~ 1930)</p> <p>크리스트교도였던 그는 러·일 전쟁 당시 전쟁의 비도덕성을 깨닫고 전쟁 반대론자가 되었으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비판하였다.</p>	<p>▲안중근 (1879 ~ 1910)</p> <p>한·중·일의 상호 협력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였으며, 3국의 공동 은행, 공동 화폐, 공동 군대 편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p>	<p>▲신채호 (1880 ~ 1936)</p> <p>민족주의에서 출발하여 무정부주의를 독립 운동의 이념으로 받아들인 그는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p>	<p>▲후세 다츠지 (1880 ~ 1953)</p> <p>노동자·농민·혁명 운동가의 인권을 지키고자 변호사로 평생을 분투한 인물이다. 재일 한국인의 권리를 위한 활동에도 가담하였다.</p>	<p>▲비진 (1904 ~ 2005)</p> <p>무정부주의에 심취하였던 중국의 작가로,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혁명전쟁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p>